

2017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12

요한의 사역 안에 있는 삼일하나님의 분배하심

성경 말씀: 요 1:1, 14:7-21, 23, 3:34, 16:13-15, 요일 2:27, 3:9, 계 12:10-11, 21:9-10, 22:13

- I. 요한의 글들의 주제는 우주 전체의 실재와 중심과 내용이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분배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분을 충만한 방식으로 영원히 표현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신성하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실재와 중심과 내용이 되어야 한다.
- II. 요한의 글들은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신성한 삼일성을 계시한다.
 - A. 요한 복음 14 장 6 절은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라고 한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object)인 아버지께 이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길이신 아들을 통해야만 한다.
 - B. 7 절부터 14 절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심으로 믿는 이들 가운데 보여지심을, 즉 아들께서 아버지의 체현으로서 믿는 이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준다.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시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서로 안에 내주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 C. 15 절부터 20 절은 계속해서 아들께서 그 영으로 실재화되심으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심을, 즉 그 영께서 믿는 이들 사이에 거하시는 아들의 실재화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 D. 대상(object)이신 아버지와 체현이신 아들과 실재화이신 그 영께서 그릇인 우리 안에 계신다. 대상과 체현과 실재화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계신 지극히 귀한 보배이다 (고후 4:7).
 - E. 요한 복음 14 장 21 절과 23 절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아들과, 아들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거처를 정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오시는 아버지를 보여준다.
 1. 대상으로서 아버지는 체현이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 체현은 그분의 실재화이신 그 영 안에 계시며, 이 실재화는 지금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영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매일, 심지어 매시간 누리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의 거하심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영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 항상 거하신다.
 3. 자신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구원’을 믿는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위에 있을 때 그들은 구원 받은 것이고, 엘리베이터가 아래 있을 때 그들은 구원 받지 않은 것이다.
 4.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이다. 우리는 이 계단으로부터 옮겨질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단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단의 꼭대기 부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5. 우리는 지하층이 아니라 꼭대기 층에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최상층으로 이끌려 지고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을 본다—고전 2:9-10, 골 3:1-2.
 6.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가짐을 의미한다.
 7.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요 14:21, 23.

8. 우리는 더욱 더 아들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심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심 안으로 이끌려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계단을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9. 그럴때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들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 정하실 것이다.
- F. 믿는이들에 대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전달이 요한복음 16 장 13 절부터 15 절에 계시되어 있다.
1. 이 전달은 마치 전류의 전달과 같다. 전기의 스위치가 켜지면 전기의 흐름, 즉 전기의 움직임이 있게 된다. 이 움직임이 전달이다—참고: 롬 8:2, 딤후전 5:16-20.
 2. 첫째, 아버지가 소유하신 모든 것은 아들의 것이다—요 16:15.
 3. 둘째, 아들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 영이 받으신다—요 16:14 하.
 4. 셋째, 그 영이 아들에게 받으셔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믿는이들에게 알려진다—요 16:13, 15 하.
 5. 결국, 신성한 삼일성의 전 존재와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찬송가 382 장 (영한 동변 찬송가 501 장) 3 절은 이 전달에 대해 말한다.
 - a.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 풍성 영 안에 있네/ 그 영 내 안에 안식하시며/ 내 생활의 실재 되네’
 - b. 이 전달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아들로부터 그 영에게, 그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이다.

III.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기 위한, 요한에 의해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다.

- A. 요한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이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생명수의 강으로서 흐르는 영원한 생명이시다—요 1:1, 3:36, 5:26, 계 22:1.
- B. 요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로고스(Logos)이시며,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며, 표현하는 분이시다—요 1:1, 요일 1:1, 계 19:13.
- C.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독생자, 즉 말씀(Word)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재에 의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분이시다—요 1:18, 3:16, 1:34, 20:31.
- D.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즉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영존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영원한 분배하심을 위해 본성에 있어서 영원하고 신성하시다—요일 1:2, 요 11:25, 14:6.
- E.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달하시는 삼일 하나님이신 그 영을 주는 분이시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 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요 3:34.
- F. 우리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본성(요 1:51, 계 1:13)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수 있도록, 구속을 위한 사람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
- G.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했다(요 1:29, 계 5:6, 7:14, 17, 13:8, 22:1).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 계신다(참고: 출 12:8-11).
- H.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다 (요일 2:2).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히 9:28).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진정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희생 제물이시다.
- I.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자이시다(요일 2:1). 변호자 (Advocate)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 편에서 돕도록 요청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조력자이다. 이 말은 또한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변호자, 법률 고문, 혹은 중재자이다.
 1. 요한 계시록 12 장 10 절과 11 절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밤낮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길 수 있다.

2. 사탄은 우리가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으며 불의하다고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사탄아, 의로운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변호사가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3. 우리는 사탄에게 말해야 한다. “입을 다물어라!, 아무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린양께 할렐루야! 피를 인해 할렐루야!” 라고 말함으로써 어린양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
 4.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즉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 될 것이다. 우리의 변호자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분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송을 돌보고 계신다.
- J. 우리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계 22:13 상). 헬라어 알파벳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다함없는 분배하심을 위해 첫째 문자인 알파이시고, 마지막 문자인 오메가이시며, 그 사이의 모든 문자들이시다.
- K.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계 2:8, 22:13 하), 영원히 존재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1. 박해하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어떤 것도 그분을 앞설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분보다 나중에 존재 할 수 없다.
 2. 만물은 그분께서 통제하시는 한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과 모든 곳을 점유하신다.
- L.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시다 (계 22:13 하). 시작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라는 것이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주 예수님 이전에나 이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 없이는 기원도 완결도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참고 롬 11:36).
- M.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계 3:14). 이것은 기원, 근원, 즉 창시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을 분배하려는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일의 근원이심을 암시한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가 근원이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변했다는 것을 가리킨다(렘 2:13).
- N.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1 장 17 절과 18 절에서 그리스도는 “나는 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그분은 반드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살아있는 이이셔야만 한다(딤후 3:15).
- O.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 참된 분이시다(계 3:7). 형제 사랑의 교회에게 주님은 거룩하신 분, 참된 분이시다. 회복된 교회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분별되어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할 수 있다.
- P.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며,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다(계 3:14 하).
1. 바벨의 혼돈은 우주적 언어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두 단어는 파괴되지 않았는데, ‘할렐루야’와 ‘아멘’이다. ‘아멘’은 단순히 ‘바로 그것입니다 (That is it)’를 의미한다.
 2. 아멘은 일종의 영원한 ‘예(yes)’이다. ‘바로 그것입니다’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있으신데, 그분의 이름은 ‘아멘’, 즉 ‘바로 그것입니다’이다. 이것은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다.
 3. 그리스도는 ‘견고한’, ‘확고한’, 또는 ‘신뢰할 만한’을 의미하는 ‘아멘’이심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은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 Q.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공급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요 3:16), 주님 안에 거하고 빛 안에서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교통에 참여하고(요일 1:3-7, 2:6), 기름바름의 가르침을 받으며(요일 2:20, 27), 신성한 씨와 함께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을 누리고(요일 3:9, 2:29, 4:7, 5:1, 4, 16-21), 예수님의 증거, 즉 삼일 하나님의 표현인 등잔대들이 되고(계 1:9-12, 20), 생명의 표현으로서 첫 열매들과 함께 수확물이 되고(14:1-5, 15-16), 그분의 증가와 만족으로서 어린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요 3:29-30, 계 19:7-9) 이끌려지고 있다.
- R. 결국, 그분의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과 연결, 연합, 합병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 안으로의 분배하심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계 21:2-3, 9-10, 22-23, 22:1-2.